

오대산 눈꽃으로 화현한 인허선사

평생 무소유와 하심 실천



◇인허스님 대비식이 15일 월정사 대비장에서 봉행됐다.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수범

월정사 회주 인허당 택호선사가 13일 오대산에 휘날리는 눈꽃처럼 아름답게 화향했다.

80평생 소임을 맡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간경과 기도 수행으로 일관해온 인허선사는 한국불교의 큰 산맥인 한암스님의 법을 이어 무소유와 하심을 실천해왔다.

인허스님은 입적 전날 밤 저녁예불에 참석한 뒤 불자들과 문답을 나누고, 몇 가지 밖에 안되는 집을 박스에 담아 정리해 놔다. 스님은 책상에 명정 글씨까지 직접 써놓은 뒤 아침이 밝아 오는 새벽, 상좌에게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평생 무소유와 근검절약으로 일관했던 스님은 보시금도 모두 그대로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 놔 문도들을 놀라게 했다. 이를 두고 조계종 원로위원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등은 큰스님의 여법한 ‘조사열반’을 되새겼다.

지관스님은 “출가자로서 자취를 감추고 일생을 수행에 전념해온 것은 수행자로서 가장 뜻 깊은 일”이라며 “인허스님의 한평생은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대스님도 “무소유와 하심의 생활자세를 몸소 실천해 후학들의 모범이셨다”며 “큰스님의 소중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애도했다.

현해스님은 “항상 법당에 석불처럼 앉아 계시던 스님, 항상 은화한 말씀으로 선문답해주시고 후학을 경책하다 열반에 드

‘정진의 원력보살’ 행장

87세 고령에도 새벽예불·간경·참선

인허당 택호선사는 1916년 6월 15일 전북 김제시 만경면 대동리 257번지에서 5남 3녀중 넷째로 출생했다. 스님은 속가의 둘째 형인 탄허 스님이 출가한 2년 뒤인 36년 오대산 상원사 방한암 스님을 친견하고 발심하여 입산, 39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39년 월정사 강원을 수료한 뒤 45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51년 한암 스님이 열반할 때까지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정진했다.

83년 탄허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그 그늘에서 묵묵히 참선, 독경, 염불의 정진을 계속해 온 인허 스님은 95년 한암문도회 대표, 96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돼 후학 양성에 정성을 쏟아왔다. 특히 근년에는 기도정진에 전념해 견거를 얻고, 근검 절약과 정진의 원력으로 사부대중의 사표가 되었다.

스님은 8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입적하는 날까지 매일 새벽 예불에 이은 독경, 참선을 멈추지 않았다.

스님 조사열반이 따로 없다”며 “스님의 뜻을 받들어 문중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항상 겸손함을 갖춘 오대산의 자비보살의 삶을 살아온 인허 스님. 스님은 언제나 찾아오는 신도들과 수좌들을 기꺼이 맞으며, 늘 사람답게 살 것을 강조해왔다.

인허 스님은 “무심히 정진하다 보면 무색 무취 무미의 도를 체득할 수 있다”며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음(知音)’ 자리는 언설로는 말할 수 없기에 ‘구업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사회가 금수세상으로 갈수록 부처님 도량만은 중생들의 의지처와 삶의 올바른 지향점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후학들에게 열심히 정진하라고 경책했다.

월정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케이블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용원사, 시공업체 상대

통영 용원사(주지 선곡)가 10일자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시공업체인 (주)효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용원사는 “통영시가 케이블카 선로설치를 위해 무단 사용하려는 통영시 산양면 영운리 산189입야 222,248㎡의 소유자이자 전통사찰”이라고 밝히고 “이 토지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선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문화관광부 장관

의 동의(전통사찰보존법 제9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절차를 밟은 바 없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케이블카 실제 선로 길이는 2km가 넘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히 “효성은 미륵산 케이블카와 같은 2선식 사업실적이 없고, 허부구 동방식이 아닌 상부구동방식을 채택한 실시설계를 제출, 입찰조건에 부합되는 않았는데도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며 선정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남동우 기자

지리산담 건설 반대

20단체, 대책위구성

남원 시내면변영회를 비롯 20여개 단체가 지리산담(마천담)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리산담 건설추진계획 백지화 전북 남원시 시내면 대책위”는 10일 시내면 토비스 콘도 연회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함양군의 담 건설 억지 주장으로 인한 지역 내 주민간의 불

화와 반목·대립은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마을 및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담 건설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등 100여명이 모인 출범식에서 정인철 시내면 변영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담은 이주민 뿐 아니라 주변마을과 지리산 생태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위는 종교와 지역, 이념을 넘어 개인 및 여러 단체의 연대를 통해 백지화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박종철 열사 16주기 추모제 16일 서울 조계사(주지 지홍)에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철 열사 16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가 고인의 영정 앞에 헌다(獻茶)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불자 노고 찬탄해요”

달라이라마, 19 JTS 방문 법회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는 11일 인도 최북 빈지역 중 하나인 ‘등게스와리(Dhongshwari)’ 지역에서 한국인 불자들에게 의해 운영되고 있는 불자축천민들을 위한 개발구호사업장인 JTS(이사장 법륜)의 ‘수자타 아카데미(Sujata Academy)’를 방문, 법회를 열었다.

인도 JTS 법당인 전정각사(前正覺寺)에서 참배를 마친 달라이 라마는 1주기를 맞아 새로이 조성된 고 설성 봉 거사의 추모비에 헌화한 후 보리수를 기념식수했다. 이어 이날 새로 개원된 ‘수자타 기술학교’ 교정에서 완공을 기념하는 초석을 제막했으

며, 3,000여 인도, 한국, 티베트의 사부대중들을 위해 법문을 했다.

달라이 라마는 법문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첫관문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인도의 오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한국 불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티베트 불교의 진실한 후원 역할을 해온 인도사람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특히 한국 불자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자비심을 베풀어 이곳에 불법이 융성하고 있으니 북으로써 찬탄한다”고 법문했다.

인도=김동훈 통신원



◇달라이 라마가 인도 JTS 수자타 기술학교 완공기념 초석제막식에 참석했다.

동국대 일반·편입학 지원

총 8,231명...8.3대 1

동국대 2003학년도 일반·학사 편입학 전형결과 987명 모집에 모두 8천231명이 지원, 평균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주캠퍼스 한의학과는 5명

모집에 314명이 지원 62.8대 1의 경쟁률, 의학과는 5명 모집에 180명이 지원 3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국대는 편입지원자에 대해서 서울캠퍼스는 22일, 경주캠퍼스는 27일 필답, 면접, 실기고사를 각각 실시하고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기자

인터넷 포교방송

부다TV 20일 오픈

불교전문 인터넷 포교방송 부다TV(www.buddhatv.com)가 20일 문을 연다.

불교 초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다TV는 설법과 포교, 문화, 교육 등 4개 채널을 갖추고 있다.

설법채널에서는 전국 각지의 사찰 법회나 불교행사의 동영상 제공할 예정이며, 포교채널에서는 찬불가 뮤직비디오와 각 절의 불사 진행과정과 의의를 들어보는 불사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문화채널에서는 영화전문 프로그램 부다시네, 청소년 음악프로그램 락앤락, 어린이 구연동화 프로그램 선재마를 등을, 교육채널에서는 초심자와 중급자를 위한 불교강좌를 선보인다.

여수령 기자

국립공원 기본법 제정을

시민모임 성명서 발표

국립공원 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립공원 기본계획법’ 수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립공원 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립공원 기본계획법을 수립하

지 않은 것은 정부의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며 법 수립을 요구했다.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은 “공원기본계획이 국립공원 보전의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규와 운영, 관리체계, 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이 수립되면 북한산관동도로 등 국립공원 내 도로 설치시 적극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